

全體主義의 哲學的 解明

『이즘』에서 『學』으로의 對立 過程(中)

朴致祐

全體主義의 諸相

한말로 全體主義라고는 하나 여러 가지가 있다. 『코프카』, 『피-렐』, 『웰트하이멜』 등의 形態說도 全體主義라면 全體主義겠고, 新活動說을 主張하여 形而上學에까지 팔을 벌리고 있는 『한스·드리-쉬』의 生物學的 全體主義인 點에서는 다를배 없다. 그러나 요즘의 所謂 全體主義라는 것은 적든 크든 民族이나 國家라는 것을 中心□□으로 삼고 들고 있는 것이 □□이다. 이런 意味에서 요즘의 全體主義는 보담 더 歷史哲學的 社會哲學 또는 國家哲學的인 全體主義들이라고 보아야한다. 그런데 이런 意味의 全體主義 中 重要한 者는 아마 다음의 세 派일 것이다. 卽 『헤-겔』을 □□하되 辨證法만을 □여 버리자는 『크로-너-』 『그록크너-』 流의 新헤-겔主義的 全體主義. 『오-트말·슈팡』으로써 代表되는 카톨릭的, 社會哲學的, 全體主義. 그리고 『로-젠벨그』로써 代表되는 나치스의, □□學的, 全體主義-이 세 派가 그것인데, 그 中에서 新헤-겔派는 아직도 헤-겔流의 『精神』(가이스트)만을 붓잡고 돌기 때문에 金빠진 文化哲學的 領域에서 버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이 果然□□나치스를 說□시킬 만한 □□을 가질 수 잇슬가는 아직은 疑問이다. 따라서 現在 가장 努力이 잇는 것은 亦是 로-젠베르그의 正統的인 나치스의 全體主義와 그리고는 슈팡流의 카톨릭的인 全體主義, 이 두 派라고 보는 便이 安當할 것이다. 나치스 世界觀의 形成者 로-젠베르그에 對해서는 이제 새삼스러히 이야기할 必要는 업겟스나, 行論의 關係上 한마디로 말하면 로-젠베르그의 理論은 現在 伊太利와 獨逸을 휩쓸고 잇는 非合理主義的 □□를 □□으로 하고 나치스와 및 히틀러의 行動과 思想에 對한 理論的 體系化를 全體한 것이라고 들 수 잇는데, 이러한 理論的 體系化를 爲하야서 그는 『슈팽글러』의 文化形態學, □히 文化□□의 思想을 가져다가 『□□□』의 思想을 만드렸고, 이와 同時에 『넛첸』의 『權力에의 意志』 『超人』의 思想을 가져다가 나치스

의 □□主義의 히틀러-의 獨裁를 合理化시켰고, 다시 獨逸神秘論의 開祖 『엑크할트』의 神秘論을 □□하여, □□民族은 『□□의 불꽃』의 힘을 버려서 自己 속집피 숨어 있는 □□적인 □□를 卽 게르만□을 불러 일으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民族□□主義를 體系化한 것이다. 따라서 여기서는 『全體』는 勿論 民族(게르만 民族)이고, 이 全體와의 □□는 엑크할트流의 神秘的 □□이라는 點, 그리고 全體로 보아서 □□적으로 生物學的 □□가 □한 思想이라는 點으로 □□할 수 있다.